

광주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구역

화정·염주주공 등 12곳 신규 지정

도시정비 기본계획안 확정…32곳 해제

광주시의 노후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등을 2020년까지 정비하는 방안을 담은 '202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북구를 시작으로 17일 오후 광산구까지 3일간 5개 자치구에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계획인 '2010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사업이 완료된 7곳 이외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25곳의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고층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정책이 건설불경기와 미분양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고, 도시경관이나 도시미미지에도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을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2010년 계획에 따라 136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사업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50곳에 그쳐 전반적인 추진율은 58.8%에 불과했다. 특히

■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주요내용			
지역	해체구역(25개소)	준공구역(7개소)	신규구역(12개소)
동 구	계림2, 금정2, 대인, 총장1, 학동1, 지산2	계림5-1	계림5-3, 산수2
서 구	양동1, 양동2, 양동4, 화정동 삼익		미륵동 연화, 화정동 염주주공
남 구	방림동1, 서동1, 서동, 월산3, 진월1, 월산시우, 봉선모아2차, 봉선명지맨션		
북 구	유동, 중홀2, 연제동외촌, 동립동 죽림	용봉2, 용봉동, 임동, 용봉동국민주택, 운암1, 운암2	본촌, 중홀3, 풍향3
광산구	용보촌, 월도산, 황룡		비아, 선창, 옥옹, 부동, 서동

(방림동 340~3 일대), 서동1(서동 및 백운동 일대), 서동(광주공원 인근), 월산3(월산 3동 일대), 진월1(진월동 일대), 봉선명지맨션, 봉선모아2차아파트, 월산 신우아파트 등 8곳이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으로 분류됐다. 북구 유동(수창초교 인근), 중홀2(동강대 인근), 연제동 외촌(본촌공단 서쪽), 동립동 죽림(동립삼아아파트 남측) 등 4곳과 광산구 용보촌(송정동 475 일대), 월도산(도산동 647 일대), 황룡(도산동 1218-103 일대) 등 3곳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환경생태보전금 '낮잠' 재우고… 세계도시환경포럼 과다 책임…

“재정난 광주시 예산 허투루 쓴다”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광주시에 대해 광주시의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 2)은 11일 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환경부에 자연환경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생태계보전 협력금 27억1000여만원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 27억여원이 중앙 정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전액 환경부에 귀속됐다가 50%는 교부금 형식으로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손 의원은 또 “시는 교부받은 27억 1000만 원도 법령에 따라 생태계보전 등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일반회계에 포함해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홍 의원 김보현 의원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도시환경포럼은 이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결과, 사업비 축소 조정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초청대상자들의 교통비, 숙식비로 책정하고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조형물과 무대, 전시장들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 규모와 예산 축소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는 인천시가 일부 지원해 ICLEI가 주최한 행사로 광주시의 환경포럼과는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맴돌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풍암저수지, 공원계획 변경없이 무분별 추진

강은미 시의원 “광주시 눈 감아주기” 질타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 없이 추진돼왔던 풍암저수지 조성 사업을 묵인해오다 뒤늦게 서면 심의만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민노·서구 4)은 11일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 없이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은 지난 2007년부터 3년여 동안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없이 풍암저수지 주변에 수

면쉼터와 분수, 목교, 회장실 등 풍암저수지 조성사업을 주제구식으로 추진했다.

이후 지난 2009년 광주 서구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제기되자 공사는 잠시 중단됐고, 이후 광주시는 뒤늦게 서면심의를 통해 솔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변쉼터에는 5억원 가량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사설상 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습지도 없어지는 등 무분별한 사업이 추진됐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면심의는 문제제기 후 단 3일 만에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기

도 했다”라며 “특히 도시공원 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차례 진행됐지만, 서면심의는 단 한차례 시행될 만큼 이례적 인 것으로, 광주시가 ‘눈 감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광주시가 맡아야 하는데도 관리당사자인 서구청에 떠맡겼으며, 서구청의 불법조성에도 단 한차례의 시정조치도 없이 조성사업비 80억여원 중 30억여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줬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은미 의원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전시행정 표본”

문상필 시의원 지적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1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 후 관리대책도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처 및 도시팽창과 시민 여가 수요에 따른 녹지공간들의 확보는 생존권 문제로 인식될 만큼 절실했는데 나무심기를 진행하면서 심지 전의 기

본적인 데이터와 심지 후의 효과분석이나 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무심기에만 급급한 수작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1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기온이 0.74도 전국 기온이 1.7도 상승했고 광주의 기온상승은 2.48도로 월등히 높다”며 “이번 도시 열섬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옥션지도와 바람길 지도 등의 자료 등을 기초로 환경정책, 공원녹지계획을 어우르는 광주시 전체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온도저감, 미세먼지 흡수기능의 확충으로 페북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2005~2014년 10년간 총 13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까지 1191억원을 투입해 942만(식재율 94.2%)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김치 수입, 수출의 700배

광주시의 한 해 김치 수입물량이 수출량의 최대 700배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나종천 의원(민주·남구 3)은 11일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8년 광주지역 김치 수출량은 3t에 불과했지만 수입물량은 무려 700배 육박하는 2095t으로 집계됐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시의 연도별 김치 수입·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수입물량은 3t인데 반해 수출물량은 1799t에 달했으며, 올해도 수출량은 14t, 수입량은 1280t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A
C 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증·병후의 체력 저하시기,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아랫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말초혈관증상 및 경련기사 다음 증상의 완화: 어깨·목걸림, 수족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

